르포 – 광주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24시

사람 모이는 곳 어디나 단속반 뜬다

6·2 전국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예비후보들은 각종 행사장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덩달아 바빠졌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사이버 선거운동 현장 구석구석까지 감시에 나선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사이버 선거 부정감시단원의 단속 활동을 밀착 취재 했다.

지난 6일 광주시 운림동에서 열린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준공식'에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현장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현장 감시단은

예비후보들 움직임 하나하나 살펴

지난 6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준공식' 행사장. 행사 참석자들이 늘어나자 동구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 정모(52)·김모(여·47)·이모(26)씨 등 3명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여느 등산객 처럼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 차림을 한 단원들은 먼 인파 속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불법으로 돌리는 사례가 없는지 유심히 살폈다.

이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자 단원들은 익숙하게 사진촬영·메모·녹음 등 세 가지 업무로 나눠 일을 했다.

정씨는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로 행사장 곳곳을 찍었다. 누군가 예비후보자·특정정당·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발언을 할 경우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서다.

이씨는 축사(祝辭)를 녹음했고, 김씨는 주변에 머물며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폈다. 행사장은 인파로 북적대 혼잡했지만, 단원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구 풍암동 국민생활체육공원 내 주차장. 모 인사의 괜클럽 행사가 열린 이곳에는 우산을 쓴 괜클럽 회원과 주민 등 100명이 몰려들었다.

회원들 속에는 서구 선관위 직원 김모(56)씨와 단원 남모(59)·권모(28)씨 등 3명도 끼어 있었다. 단원들은 괜클럽 회원들에게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행사는 1시간30분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큰 문제 없이 끝이 났다.

서구 선관위 부정선거감시단원 남씨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는 물론,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선관위가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건수는 모두 34건이다. 행위별로는 문자 메시지 발송 7건을 포함해 인쇄물 배부 등 5건, 금품·음식물 제공 4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3건 등이다.

■ 사이버 감시단은

홈페이지·문자메시지 샅샅이 검색

지난 5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 사무실. 33.05㎡ 크기의 내부 공간에는 10명의 감시단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때 단원 박모(34)씨의 키보드 자판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다. 박씨가 중앙선관위에서 자체 개발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의 검색어 코너에 '출판기념회'라는 단어를 넣자 10개의 사이트가 동시에 화면에 뜬 것이다.

박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전남 모 사회단체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 곳에는 모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인 A씨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출판기념회 동영상이 올려져 있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박씨는 즉시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 삭제요청을 했고, 게시물은 1시간30여분 뒤 삭제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선거를 단속하는 '감시의 눈'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남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은 지난달 2일 발족 이후 이날 현재까지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학생과 주부 등 10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 단원이 같은 날 오후 6시 인맥기반 커뮤니티 사이트인 광주시장 예비후보자 B씨의 미니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방문자 수가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이 홈페이지에는 예비후보자와 네티즌 간 대화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불법적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시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 관계자는 "불법선거를 저지르는 수법도 날로 진화하는 추세여서 선거 60일 전부터는 단원 수를 더 늘려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시장 후보 향응 30배 '과태료 폭탄'

60명에 3,655만원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가 '향응 액수'의 30~4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장 출마 예정인 A예비후보자나 지인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60여명에게 총 3천65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선거구민 43명을 대상으로 71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지인인 B씨는 지난해 9월께 서울 강남구 한정식점에서 20여명을 대상으로 6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가 제공한 총 식사금액이 138만4천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예정액(3천655만원)은 1인당 26.5배에 해당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인 C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41만원 상당의 '음주가무'를 제공받은 유권자 17명에 대해 1인당 55만9천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들이 접대받은 평균 금액이 1만8천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1배의 과태료를 물린 셈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mihang

빗나간 구애, 비극적 종말

광산 원룸女 살해범은 같은 회사 스토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특히 CC-TV에 찍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20여일간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산경찰은 6일 짝사랑하던 회사동료를 살해한 백모(2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김모(여·28)씨의 원룸에서 김씨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회사 동료인 백씨는 지난 2008년부터 함께 일하며 스토커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범행 전날 오후 8시께 꽃배달 종업원인 것처럼 꽃을 들고 얼굴을 가린 채 김씨를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의 손발을 묶고 있던 테이프를 풀고 방안에 묻어 있던 피를 닦아냈으며 이후 태연하게 출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김씨는 범행 20일 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를 비롯한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CC-TV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백씨의 손에 난 상처와 사건 당일 행적을 캐물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백씨가 근무했던 공장 쓰레기 더미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아냈다. /김형호기자 khh@

부실시공 공갈 돈뜯은 사이비 기자 2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7일 "부실시공을 기사화하겠다"며 고속도로 건설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모 일간지 호남취재부장 국모(54)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자 박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씨 등은 지난해 2월 초 장흥군 장동면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기반공사가 잘못됐다"며 시공업체를 협박해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화물차 가로등 '꽝' 2명 숨져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문흥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김모(43)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가 보도 경계석에 부딪힌 뒤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최모(40)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비 때문에…" 일용직들 주먹다짐

쌍나팔

○…연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일거리를 찾지 못한 40대 근로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7일 "숙소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주먹질을 한 조모(41·북구 용봉동)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근로자대기소의 숙소로 들어가던 중 안에서 쉬고있던 이모(34)씨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데 격분, 이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경찰에서 조씨는 "연일 계속된 비로 인해 일감을 찾지못해 신경이 곤두서있었는데, 갑자기 반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醫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원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마무리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개강: 3월 2일
특설2 기초 영어 개강: 3월 8일
검증된 최고의 강사진의 직접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 일반생물학
MDPass 醫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